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렘 강해 설교 40)

성경말씀: 애3:1-6, 19-41

애가

예루살렘 함락 후 지은 애곡하는 시, 히브리 성경 셋째 부분 메길롯에 있음(아가, 룻, 에스터, 전도서).

내용: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

40년간 외친 것이 마치 실패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은 상황, 도시와 성전이 훼파됨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는 슬픈 감정을 시로 표현함.

설명: 1:1-5; 20-21; 2:9-12; 20-21; 4:1-8; 5:1-2; 21-22

이합체 시: 22글자, 1,2, 4장은 한 절씩, 3장은 3절씩, 5장은 22절이지만 이합체는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공식(히12)

1.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경고를 주시고 참고 참으신다.
2. 인내에 한계가 오면 징계하신다.
3.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온다. 없으면 사생아이다.
4. 징계가 오기 전에 성령님의 은혜로 돌이켜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3장의 핵심 내용

1장과 2장에서 도시와 백성의 황폐함을 묘사한 뒤 3장에서 대언자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묘사한다.

1-18절은 예레미야의 절망, 19-41절은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

1-18에는 예레미야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의 고통이 묘사되어 있다.

1절: 나, 2절: 어둠, 3-6절: 하나님이 치심, 7-11: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음, 12-13: 화살을 쏘, 그 결과: 평강이 없다(17). 히브리말 살롬, 결론 18-19: 힘과 소망이 없다.

19-21절 전화위복: 고난, 재난, 쑥, 쓸개를 기억하니 겸손하게 되고 소망이 생긴다(20-21).

우리는 어떤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만드는 것은 고난과 힘든 일이다(시119:71).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주기도 하신다(롬8:28).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를 괴롭히게 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후 12:9-10)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

날이 가면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감사 쪽으로 기울는가?

주님 찬양

22-23절 주님 찬양: 다 망한 것 같은데 가만히 둘러보니 여전히 유다가 남아 있다. 우리 역시 이런 경험을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의 긍휼(mercy)과 불쌍히 여기심(compassion)이다.

긍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용서해 주시는 것

불쌍히 여기심: 같은 심정으로 위로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시103:8-9, 14(다윗의 시)

우리 같으면 참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참고 참으신다(출애굽 사건, 민수기 14장 22절, 10번).

은혜와 긍휼의 표본: 성육신, 겸손과 희생의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죽기까지 사랑하심), 부활, 승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는가? 찬송가 460

어르신들은 특히 어떤가? 일제 식민지, 6.25, 4.19, 5.16 등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느껴지는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100% 있는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나를 보면 낙심이 되고 환경을 보면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긴다.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다(22).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23).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실하심이다. 오 신실하신 주(447장), 구원이 유지되는 이유

왜 그럴까?

1. 주님은 백성을 버리고 잊지 않으신다(31절).
2.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신다(32절).
3. 징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33절).
4. 사람들이 악하게 행하는 것을 보신다(34-36절).
5. 하나님이 주관하신다(37-38절).
6. 우리의 죄들로 인한 징계면 그분의 사랑이다(39절).

우리가 할 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40-41).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 악한 상황에 빠져도 주님께 돌아가면 기쁨을 주신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바울, 베드로
모두 보통 사람들이다.

죄 많은 인간들이다. 그러나 모두 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회개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

불신자도 회개, 신자도 회개, 기독교는 회개와 믿음의 종교이다.

예레미야 총정리

40년간 묵묵히 주님의 일 수행, 모세처럼 무덤도 알려지지 않은 채 이집트에서 죽음

그는 죽었으나 그가 전해 준 말씀들은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임

유다 백성의 세 가지 거짓 소망

1. 다윗의 왕좌: 하나님의 언약(삼하7), 다윗의 씨가 영원히 왕좌에 앉아 다스린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사형통, No!
2. 성전: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렘7:4).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말았다. 예배당 크기, No!
3. 이집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솔로몬, 그러나 이집트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하는 곳이다. 우리의 도움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교훈

1.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여야 한다.
2. 참 대언자들은 대개의 경우 핍박을 받았다(모세로부터 사도들 시대까지).
3. 애국자는 백성의 죄들을 모른 채하고 넘어가지 않는다(통진당 사건, 동성애 등).
4. 신실한 대언자들조차도 종종 낙담하고 의심하곤 한다. 거의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기까지 하였다.
5.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6. 사역에서 가장 큰 보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겸손과 희생의 섬김): 예수님과 예레미야
7. 리더에게 신실한 친구와 협력자들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1. 지금 한국의 정치 종교 상태: 그 당시와 동일하다.
2. 종교 놀이와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
3.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목사들이 나오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4. 내가 그런 리더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바르게 교회를 하겠다고 작정해야 한다.
5.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사회